

獨 지방선거 “우리만 잘 살자” 약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 전날 주도 에어푸르트의 독일대안당(AfD) 유세 현장. 이튿날 투표 결과 AfD가 제1당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극우 정당 승리는 나치시대 이래 처음' 식의 국내외 주류 매체 보도만으로 지난 수십년간 기독교화한 이른바 진보세력과 서민·중산층 삶이 괴리돼 온 귀결임을 간과하기 쉽다.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대안당(AfD)이 제1당을 차지했다. '극우 정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나치독일 이후 처음' 식의 국내외 주류 매체 보도만으론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연합(EU) 엘리트의 지향과 바다 서민의 현실이 크게 괴리돼 온 귀결임을 간과하기 쉽다.

튀링겐 주의회 선거 최종 집계 결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방정부 구성 멤버인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 현지 기존 최대 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이 23.6%에 그친 가운데 1위 AfD가 32.8%를 득표했다. 2013년 AfD 창당 이후 첫 승리다.

또 급진좌파로 불려 온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15.8%로 3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막강한 3위인 셴이다. 반면 이른바 '신호등 연정' 멤버들 성적은 각각 숄츠 총리가 소속된 SPD 6.1%, 녹색당 3.2%, FDP 1.1% 등이다. 이들 정당의 과거 규모나 역사를 생각할 때 처참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작센 주의회 선거에선 AfD가 득표율 30.6%로 1위를 놓쳤으나 1위인 CDU(31.9%)와 간발의 차였으며 그 다음이 BSW(11.8%), 숄츠 총리의 SPD(7.3%)다. 알리스 바이델 AfD 중앙당 공동대표가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이번 두 지역 선

거 결과를 “역사적인 성공”으로 자평했다. 기존 정당의 퇴조와 신생 자국중심주의 정당의 약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심화돼 특히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서민·중산층 삶의 질 저하와 함께 현저히 가시화됐다. 5년 전 선거 때보다 기독교 정당 지지율이 더욱 낮아진 배경이다. 따라서 현 정권 지지세의 추락과 AfD 득세가 재확인된 이번 튀링겐·작센 선거 결과를 “경제적 낙후성과 반미민 정

左右양극 AfD·BSW 으쓱... 조기총선 목소리 거세질듯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서민·중산층 삶 추락... 기존 정당 퇴조

서 강한 옛 동독지역' 특유의 현상으로 본 주류 매체 논조의 일방적 수용은 경계해야 한다.

독일의 기존 거대 정당들 대부분 진보를 자처하며 약자·소수자 배려와 분배 정의의 가치를 중시해 왔다. 이것이 곧 EU 엘리트에 공유된 세계관·가치관이자 유럽 운동권 세대가 국정을 장악한 70~80년대 이래의 보편 상식이다. 그들의 이상을 구현한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선거 결과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작센 주의회 선거에선 AfD가 27.5%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2019년엔

23.4%로 2위). 다만 튀링겐과 작센에서 AfD의 주정부 참여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관측돼 눈길을 끈다. 기성 정치권을 대표하는 현지 SPD·CDU가 AfD와 불타협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헌법수호청 또한 튀링겐·작센 지역 AfD를 우익 극단주의로 규정해 감시해 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튀링겐의 경우 제1당인 AfD가 배제된 채 CDU 중심의 BSW·SPD 등 3개 정당 연정이 예상된

다. 같은 극단이라도 좌파인 BSW 대접이 AfD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작센주에선 미하엘 크레치머 현 주총리 소속 CDU가 차기 정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이 “우리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튀링겐과 작센) 유권자들이 우리가 AfD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AfD의 정부 참여를 원한다”며 반박했다. 회계 튀링겐 AfD 대표 역시 “가장 강력한 정당이 연정 회담을 시작하는 게 전통이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AfD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며 주

정부 참여 의지를 과격했다.

튀링겐과 작센 주정부 연정 협상 시 양 지역에서 각각 3위를 한 BSW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BSW는 AfD와 개별 입법 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좌우 극단으로 평가되는 이들 두 정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대(對)러시아 관계 회복·미군 정책 전환 등 핵심 이슈에선 한목소리인 것이다. BSW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연정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지방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시험대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조기총선 요구가 강해질 조짐이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아예 이번 선거 결과를 현 정권에 대한 '거부 표현'으로 짚으며, 숄츠 연정을 향해 “자신들이 계속 통치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에 내년 9월 연방의회 총선 이전의 마지막 주요 선거이자 숄츠 총리의 지역구 포츠담이 속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치른다. AfD는 현재 브란덴부르크에서도 CDU를 따돌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다. 튀링겐 AfD 대표 회계가 신나치를 연상시키는 선동적 언사로 비판받으면서도 상승세는 여전하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호텔업계 호황 속에 노동자·고객은 찬밥”

노조 '유나이티 히어' 중심으로 임금인상·업무절감 투쟁

미국의 주요 도시 8곳 25개 호텔 노동자 약 1만 명이 노동절(9월 첫째 주 월요일) 연휴기간을 기해 파업 중이라고 AP 통신과 미 CNN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보스턴·시애틀·샌프란시스코·샌디에고·샌디에고·하와이(호놀룰루) 등에서 호텔 노조 '유나이티 히어'(UNITE HERE) 소속원들이 일터를 떠나 거리 시위에 나섰다.

주로 호텔의 객실 청소나 레스토랑의 음식 서빙 업무 담당인 이들은 고용주인 힐튼·하얏트·메리어트 등 주요 호텔 체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나이티 히어의 그웨 밀스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호텔 업계가 기록적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노동자와 고객이 소외돼 있다. 노동자들 수입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CNN 인터뷰에 응한 힐튼 호텔 18년 차 직원 아이사타 셰의 경우 지난 5년 사이 집 월세가 월 1900달러(약 254만 원)에서 2900달러(약 388만 원)로 올라 “내 임금도 집 월세를 겨우 낼 수준”이라며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우버 기사를 겸업 중이라고 한다.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12개 도시 65개 호텔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경고인 반면, 힐튼과 하얏트 대변인은 노조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하얏트의 노사관계 책임자 마이클 덴젤로는 “회사의 협상 의지에도 유나이티 히어가 파업을 선택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힐튼과 하얏트 측이 각각 “공정한 합리적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파업기간 투숙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유나이티 히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호텔들이 인력과 서비스를 감축한 이래 호텔 종사자들이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렸으며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밀스 대표는 “호텔업계가 궤도를 벗어났기에 파업을 한다”며 “호텔이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근로자에 대한 약속을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뉴 노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여행객들에게 파업 중인 호텔에 머물지 말 것을 촉구하며 해당 호텔에 이런 주장을 담은 파켓을 세울 계획이다.

유나이티 히어 노조원들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호텔과 디트로이트 카지노에서 4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듬해 대부분 파업 종료 후 전보다 나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일반적 메이데이(5월1일)와 달리 미국 노동절은 9월 초다. 최초의 노동절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돼 이듬해 5월1일 시작됐다. 전미 노동자들의 파업과 함께 5월3일 시카고에선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해마다 5월1일을 기해 벌어지는 파업과 시위 부작용 때문에 결국 미국과 캐나다에선 5월1일을 ‘법의 날’로 하고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뉴질랜드 노동절은 10월 넷째 월요일이다. 일본에선 11월23일이 ‘근로 감사의 날’이며 5월1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1일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서 호텔 운영사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힐튼 월드와이드, 하얏트 호텔과의 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여러 도시에서 이틀간의 파업이 발생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히어 노조가 대표하는 호텔 노동자들이 하얏트 리전시 인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역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